

## 디지로그 (Digilog) 시대와 그 적들

김한성 목사

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내에 넘쳐 나시길 기도 합니다. 아주 오래 전에 칼 포퍼가 쓴 "열린 사회와 그 적들" (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) 을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. 몇해 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명비평가인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"디지로그" (Digilog) 란 책이 출간 댔습니다. 오늘 예배 중에 신천임원들을 세우는 시간을 준비하며, 이 두 권의 책이 제 머리 속에 떠올랐습니다.

요즘 어딜 가도 자주 듣는 말이 '융합' 이라는 단어입니다. 대학에서는 학제간의 융합, 회사에서는 기반 산업간의 융합, 모임/회의에서는 머리와 가슴의 융합, 이처럼 낯설게 느껴졌던 것들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. '디지로그'는 후기 산업/정보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 입니다.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정서의 융합입니다. 한국사회 (또는 한국인)는 디지로그 사회를 살아 가면서, 디지로그적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. 한국인은 급변하는 IT산업의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, 동시에 맛과 멋을 즐길줄 아는 민족입니다. '그놈의 정 때문에' 정이 있는 백성이고, 아직도 '밤 마실'의 관심과 사랑이 남아있는 삶입니다.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한 디지털 녹음보다 가끔씩 관중들의 기침 소리와 호흡, 살 냄새가 풍겨나는 음반에 더 애착이 갑니다. 패스트푸드를 먹지만, '슬로우 생각'을 할 수 있는 여유가 그립습니다.

물론 닫혀진 사회에서 열려진 사회로 사회변동의 축이 옮겨졌을 때, 인류는 뜻하지 않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. 디지로그 시대도 마찬가지 입니다. 오히려 그 불편과 위험의 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. 예전에 사랑을 고백할 때, 긴 밤을 하얗게 지새며, 고치고 또 다듬어진 손편지를 썼지요. 요즘은 교육과 해석이 필요한 이모티콘 하나면 순식간에 지구상 어느 곳에 있는 사람에게 내맘을 전할수있습니다. 참편리해졌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무척 위험해졌습니다. '아'와 '어' 가 다른 미묘한 감정의 차이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 속에서는 마치 확장기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과장되고, 확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.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만나면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는 일도 문자와 이메일의 커튼 뒤에 가리워지면, 복잡한 오해를 양산해 냅니다.

디지로그 시대의 적은 바로 '편견' 입니다. 살아온 배경과 경험의 폭으로 상대방의 생각과 의도를 재단할 수 없습니다. 어르신들이 훨씬 더 디지털적인 사고를 하실 수도 있고, 젊은이들이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. 디지로그 시대에는 마음의 빗장을 열고, 가슴과 가슴을 맞대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, 우리는 인터넷이나 가상공간에서만 만나게 되고, 공간적인 거리는 아주 가깝지만, 심리적인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문명의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됩니다.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전 교우들이 가슴에 이름표를 달아 보려고 합니다. 아직까지 대화해 보지 못한 교우들을 찾아 가십시오. 디지로그 시대의 적들을 넘어서는 길은 따뜻한 사랑과 관심입니다.